

숙련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에 관한 질적 연구*

장유진** (한양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 방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 전공 박사학위와 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15년 이상의 상담 경력과 10년 이상의 슈퍼비전 경력이 있는 숙련상담자 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였고, 합리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형성과 특징 파악을 위해 내담자의 외현적, 비언어적 특성,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진술,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정서적 반응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사례개념화를 위해 호소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핵심 욕구와 패턴을 파악하며,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론적 틀을 토대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상담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내담자와의 합의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핵심 역동과 패턴을 반영하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상담전략과 기법을 선택할 때에는 내담자의 특성과 준비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안정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전략과 기법의 활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고 믿었다. 참여자들은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에 관한 훈련 방법으로 풍부한 사례 경험을 최우선으로 권하였고, 이론적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숙련상담자, 사례개념화, 상담개입전략 수립, 합리적 질적 분석

I. 서론

사례개념화와 상담개입전략 수립은 상담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상적 판단 및 의사결정 작업이다(Falvey, 2001; Prieto & Scheel, 2002).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는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재까지 내담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원인과 경로를 가설적으로 검토한 후 내담자의 주 호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 p. 278)”으로 정의된다. 이렇듯, 사례개념화라는 개념 속에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는 내담자 문제 및 문제의 원인에 관한 가설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 수립을 구분하여 언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9187)

** 주저자, 부교수, yoojinjang@hanyang.ac.kr

과정을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로, 상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상담개입전략 수립(treatment planning)’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상담개입전략 수립이 상담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기존의 사례개념화 연구들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점(Falvey, Bray & Hebert, 2005; Seligman & Reichenberg, 2014) 때문이다.

임상적 판단과 정보처리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정보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휴리스틱스(heuristics), 즉 인지적 절감전략(cognitive shortcut)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lvey et al., 2005). 이러한 휴리스틱스는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수많은 변인들을 고려하는 대신에 다수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정한 수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임상적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복잡성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상담자들은 많은 사례수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초기의 평가와 상담개입전략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인지적 절감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Garb, 1998). 하지만 휴리스틱스의 과도한 사용은 내담자나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편향된 판단이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Arkes, 1991; Strohmer & Leierer, 2000). 점차 상담자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직관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담자의 주관적 편향에 따른 임상적 판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사례개념화와 상담개입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Gutierrez, Fox, Jones, & Fallen, 2018).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상담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례개념화와 개입전략 수립 과정을 조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한 상담이론에 입각하여 내담자에 대한 초기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바탕을 두어 상담계획을 수립한다(Seligman & Reichenberg, 2014). 예를 들어, 인지치료 이론에 근거하여 상담을 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혹은 역기능적인 사고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어 초기 평가를 진행하고, 인지적 변화를 위한 상담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담개입전략을 구상한다(최윤미, 2019). 더구나, 상담의 효과는 이론적 접근의 차이보다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이 공유하는 공통 요인들(common factors)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어 오고 있다(Lambert & Ogles, 2014; Laska, Gurman, & Wampold, 2014; Wampold, 2015).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이 상담효과의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론적 근거에만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Crits-Christoph et al., 1991; Luborsky et al., 2002; Marcus, O’Connell, Norris, & Sawaqdeh, 2014)이 보고된 바 있으며, 상담자의 이론적 정향과 임상적 판단을 비교한 연구들(Eells, 1999; Kealy, Goodman, Rasmussen, Weideman, & Ogrodniczuk, 2017)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상담자들은 이론적 정향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임상적 판단 및 의사결정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Goldfried 외(1998)은 대가급(master) 정신역동 상담자들과 인지행동 상담자들이 내담자에게 취한 치료적 방향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Fox 외(2016)는 효과적인 이론적 정향 간에 공통요인이 있는 것처럼, 상담자들이 내담자와의 초기 탐색 작업을 통해 치료적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공통적인 인지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Gutierrez 외(2018)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이론적 정향을 가진 9명의 숙련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전략 수립 과정을 탐색한 결과, 이론적 정향과 관계없이 상당 부분 공통된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상담자의 이론적 정향과는 무관하게 사례개념화와 상담개입전략 수립을 위해 사용되는 인지적 전략과 패턴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숙련상담자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범이론적 인지적 전략과 패턴을 탐색하는 것은 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례개념화를 주제로 한 국내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윤주(2001)는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을 개발하여 슈퍼바이저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각 요소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상담 경력이 높을수록 겉으로 드러난 문제나 증상보다는 문제의 근원과 핵심적인 역동에 더 주목하고, 상담전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윤주와 김계현(2002)은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 평정 매뉴얼을 구성하여 가상적인 상담사례에 대해 81명의 상담자가 사례개념화한 내용을 평가하였는데, 연구결과 상담 경력이 높아질수록 사례개념화 수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담 경력과 사례개념화 수준 간의 정적인 관계는 200명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오효정 외(2012)의 양적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례개념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개념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상담 경력과 사례개념화 수준의 정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문헌고찰을 토대로 사례개념화 요소를 추출하여 상담자들의 경험적 지식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이명우 외(2005)는 상담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요소, 사례개념화 작업과정, 사례개념화 평가준거, 사례개념화 교수방법에 대한 상담자들의 경험적 지식을 탐색하였다. 면접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사례개념화에 필요한 요소 영역은 기초적 요소와 심층적 요소(개인내적/대인관계적)의 범주로 분류되었고, 작업과정 영역은 요소를 통합하기, 수정/보완하기, 사례에 적용하기라는 범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준거 영역은 적절한 정보의 양, 요소 간 연결의 적절성,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 이해 정도, 교수방법 영역은 이론지도, 모델링, 연습, 토론, 피드백 등의 범주로 각각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상담자들이 실제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사례개념화를 수행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제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과 슈퍼비전 경력, 전문가 자격증 소지기간 등의 측면에서 숙련된 수준의 상담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출된 범주가 다소 추상적인데 이를 바탕으로 빈도를 산출하고 각 범주에 해당되는 개별 참여자의 응답 내용을 목록화하여 제시하고 있어 참여들 간 공통성과 차별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개념화에 비중을 두어 상담목표 설정이나 상담개입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수행된 소수의 사례개념화 관련 연구는 연구주제와 방법, 참여자들

의 특성 등의 측면에서 숙련상담자들의 실제 수행 방법을 조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상담 개입전략 수립을 사례개념화의 한 요소로 간주하여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상향된 참여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동료 지명 방식을 통해 현장의 상담자들에게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숙련상담자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상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례개념화를 수행하는가?

둘째, 숙련상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상담목표를 설정하는가?

셋째, 숙련상담자들은 상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상담 전략과 기법을 선택하는가?

넷째,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 능력의 향상을 위해 숙련상담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사례개념화와 상담개입전략 수립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인터뷰 대상자는 풍부한 상담과 수퍼비전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에 대해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숙련상담자이어야 하므로, 숙련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권혜경, 이희경, 2013; 김혜미, 오인수, 2016; 이명우 외, 2005; Gutierrez et al., 2018)에서 사용한 포함 기준(inclusion criteria)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선발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로 한정하였다: (a)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b) 15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자, (c) 10년 이상의 수퍼비전 경력을 가진 자, (d) 상담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e) 상담분야에서 숙련상담자로 인지도를 가진 자. 인지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동료 지명(peer nomin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임원진 중 5명을 주요 정보 제공자로 하여 국내 상담자 중 뛰어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상담자 10명을 각각 지명하도록 요청하였다. 상대적으로 많은 횟수의 지명을 받은 상담자를 우선으로 하되 상담과 수퍼비전 경력, 박사학위 소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에서 권장하는 참여자 수가 8~15명(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에 동의한 8명을 최종 인터뷰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8명의 인터뷰 참여자 중 6명은 여성, 2명이 남성이었다. 참여자 연령은 40대 후반이 4명, 50대 초반이 4명이었다. 상담 경력 면에서는 17년~28년의 범위를 보였으며(평균 21.63년), 수퍼비전 경력은 10년~20년의 범위(평균 15.75년)에 걸쳐 나타났다. 상

담의 이론적 정향 측면에서는 6명이 2개 이상의 이론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른 2명은 대상관계이론을 주요 접근으로 한다고 진술하였다. 통합적 접근을 구성하는 이론을 보면 정신역동과 인간중심치료를 포함하는 경우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슈탈트, 대상관계이론, 실존주의 상담을 포함하는 경우가 각각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터뷰에 참여한 숙련상담자의 특징

번호	성별	연령	이론적 정향	상담 경력	수퍼비전 경력
1	여	40대 후반	통합적 (대상관계, 계슈탈트)	17년	10년
2	여	40대 후반	통합적 (인간중심, 대상관계)	23년	14년
3	남	40대 후반	대상관계	19년	12년
4	여	50대 초반	통합적 (정신역동, 인간중심)	23년	19년
5	남	50대 초반	통합적 (정신역동, 인간중심, 실존주의, 마음챙김 기반 접근)	18년	12년
6	여	50대 초반	대상관계	25년	20년
7	여	40대 후반	통합적 (계슈탈트, 정신역동, 실존주의)	20년	10년
8	여	50대 초반	통합적 (분석심리, 인간중심, 정신역동)	28년	20년

2. 연구팀과 감수팀

연구팀은 상담 전공 교수인 본 연구자와 CQR 분석 경험과 상담 및 수퍼비전 경력이 본 연구자에 준하는 대학 상담 전공 교수 1인으로 구성되었고, 감수팀은 CQR 분석 경험이 많은 상담 전공 박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팀은 인터뷰 질문지 작성 및 인터뷰 실시, 자료분석 등을 담당하였고, 감수팀은 자료분석 결과 및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연구팀에게 피드백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연구팀은 감수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논의하며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전담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인터뷰 대상자 모집을 포함한 자료수집 절차는 본 연구계획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후 시작되었다. 최종 선정된 8명의 인터뷰 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구설명서와 동의서를 발송하여 최종 동의할 경우 서명 후 회신토록 요청하였다. 인터뷰는 개별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면대면 혹은 전화를 통해 평균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사례개념화 관련 국내 문헌(이명우 외, 2005; 이윤주, 김계현, 2002)과 연구자의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후, 예비 인터뷰를 거쳐 수정, 보완되었다. 예비 인터뷰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과 상담심리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5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1인을 대상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예비 인터뷰 결과, 인터뷰 진행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내담자에 대한 초기 인상 형성과 특징 파악 방법을 묻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인터뷰 질문 목록에 추가하였다. 최종 사용된 인터뷰 질문 내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참여자의 반응을 구체화 혹은 명료화하기 위한 추가 혹은 촉진 질문은 인터뷰를 담당하는 본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인터뷰 과정에서 즉시적으로 결정, 사용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음성녹음기를 통해 녹음되었으며, 익명성 유지를 위해 각 녹음파일에 사례번호가 부여된 후, 결과 분석을 위해 녹취록으로 전사되었다.

〈표 2〉 인터뷰 질문 내용

질 문
1. 내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과 특징을 파악하실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시는지요?
2. 사례개념화 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요?
3. 사례개념화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목표를 정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요?
4. 상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기법을 정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요?
5. 사례개념화와 상담개입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 자료분석 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가 개발한 합의적 질적 연구(CQR)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CQR은 자료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관점을 반영하며 연구자들 간의 합의 과정을 중시하는 팀 기반(team-based) 분석 기법으로, 연구자의 주관 을 최대한 배제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려는 접근이다(Hill et al., 2005). CQR의 자료분석은 크게 영역 부호화, 핵심개념 구성, 교차분석의 순서로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영역 부호화 단계에서는 인터뷰 질문지의 내용을 토대로 영역의 초기 목록을 먼저 구성하고, 연구팀에 속한 2명의 연구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인터뷰 사례를 정독하면서 이 목록을 수정한 후,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영역을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핵심개념구성 단계에서는 연구자 2명이 각 사례의 녹취록을 정독하면서 최종 생성된 영역에 해당하는 참여자 반응을 코드화하고, 논의 및 합의를 거쳐 핵심개념을 구성하였다. 감수팀은 연구팀에 의해 생성된 영역과 핵심개념이 원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연구팀에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연구팀은 이를 반영하여 수정을 거친 후 영역과 핵심개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교차분석 단계에서는 영역별로 정리된 참여자들의 핵심개념 중 유사한 것들끼리 범주화하여 범주를 생성하고 명명하였으며, 범주별 사례 빈도를 산출하였다. Hill 외(2005)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출된 범주가 거의 모든 사례(7~8개)에 나타날 경우는 “일반적(general)”, 반 이상의 사례(4~6개)에

나타나는 경우는 "전형적(typical)", 반 이하의 사례(2~3개)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변동적(variant)"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1개 사례에만 해당되는 범주는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교차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감수팀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Ⅲ.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숙련상담자 8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CQR로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영역과 2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영역 및 범주와 각 범주의 빈도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영역별로 나타난 범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인터뷰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영역, 범주 및 사례 빈도

영역	범주	빈도
내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형성과 특성 파악 시 고려사항	내담자의 외현적, 비언어적 특성	전형적(6)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진술	전형적(4)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정서적 반응	변동적(3)
사례개념화 방법	호소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	전형적(5)
	핵심 욕구 및 패턴 파악	전형적(5)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	전형적(5)
	이론에 근거	전형적(4)
	핵심 내러티브 탐색	변동적(2)
	자원이나 강점에 대한 관심	변동적(2)
	역지사지의 태도 견지	변동적(2)
	반복적 수정 및 명료화	변동적(2)
	주요 정보의 기록 및 통합	변동적(2)
상담목표 설정 방법	내담자의 바람에 초점을 둔 합의된 목표 설정	일반적(7)
	핵심 역동과 패턴 반영	전형적(6)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	전형적(5)
	목표의 우선 순위 설정	변동적(2)
상담 전략과 기법 선택 방법	목표 점검 및 수정	변동적(2)
	내담자 중심	전형적(6)
	관계 형성	전형적(5)
사례개념화 및 개입전략 수립 능력 향상 방법	개입 순서 고려	변동적(1)
	풍부한 사례 경험	일반적(7)
	이론적 틀 갖추기	전형적(4)
	충실한 내담자 탐색	변동적(2)
	상담자 자신에 대한 성찰	변동적(2)

1) 내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형성과 특징 파악 시 고려 사항

이 영역은 초기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요소에 관한 것이다. 상담실이라는 낯선 공간과 상담자라는 낯선 사람을 마주 하면서 내담자가 보이는 태도와 행동은 내담자에 대한 최초의 가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내담자의 외현적, 비언어적 특성.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외모, 옷차림, 표정, 인상, 제스처, 시선접촉, 태도, 진술 태도 혹은 방식, 행동 특성 등과 같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성들이 내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보았다. 내담자가 표현하는 언어적 내용보다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내담자의 핵심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입장이었다.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태도와 방식을 통해 참여자 4는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고, 참여자 6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7은 상담신청을 위해 전화하는 태도나 상담실에 들어오고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등은 내담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말하기 전에 그런 걸로부터 아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이 없구나, 지쳐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외모적 태도라든지 뭐 첫 만남에서 풍기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일단 일상적으로 전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옷차림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뭐 말을 할 때 그 에너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의 눈맞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옷차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참여자 4)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진술. 참여자들의 절반은 내담자가 첫회기 상담에서 진술하는 호소 문제를 들으며 내담자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그(녀)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1은 내담자의 진술 속에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한다고 하였고, 참여자 2는 정서가 묻어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였다. 참여자 6은 제시하는 정보의 순서와 제시하지 않는 정보의 종류는 내담자가 직면하기 어려워하는 갈등이나 감정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어떤 정보를 먼저 내는지, 또 정서도 어떤 정서를 먼저 내놓는지, 또 어떤 건 뒤로 배치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먼저 내놓는다고 꼭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전한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참여자 6)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정서적 반응. 3명의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분위기, 의사소통 방식, 독특한 행동 특성 등이 자신에게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반응에 주목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개인적인 느낌을 자각하는 것은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상을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관점이었다..

그니까 상담자에게 예를 들면 어떤.. 음.. 역전이라고 할게요. 역전이 혹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위 경향성 인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지지? 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인상 자체로도 느낌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미지나 혹은 울림을 주거나 영향력을 주거나 하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보려고 저는 시도를 많이 하구요. (참여자 3)

2) 사례개념화 방법

이 영역은 참여자들이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와 문제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설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준다. 전술한 내담자에 대한 인상 형성과 특성 파악이 주로 본격적인 상담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이 영역에 속하는 과업은 상담이 본격화되면서 수행되는 상담자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호소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첫회기에 꺼내놓은 호소 문제를 중심으로 사례개념화 작업을 시작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형적인 수준의 빈도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진술 속에 현재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상담에 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진술 속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참여자 6은 자신이 역동적인 접근을 취하는 상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탐색 자체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현재 내담자가 겪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호소 문제에 초점을 두어 개념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현재 문제로부터 출발해라. 전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역동이나 히스토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역동 이론을 주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출발되지 않는 역동이나 과거 탐색은 별로 의미가 없다.. (참여자 6)

핵심 욕구 및 패턴 파악. 5명의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있어 결핍 혹은 과잉 충족되어 있는 욕구를 탐색하고 그 욕구와 관련된 행동 및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내담자의 현재 문제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계슈탈트를 이론적 축의 하나로 사용하는 참여자 2는 정서 자각을 강조하며 정서 속에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대상관계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참여자 3은 '전이'를 언급하며 이러한 지각적 왜곡 역시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분석심리치료를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을 취하는 참여자 8은 내담자가 외적 인격 혹은 집단의식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장 큰 게 자기욕구로 살았냐 주어지는 외부조건에 의해서 살았냐 하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조건에 의해서 살았다 하면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중심상담에 근거하자면 외부가치에 조건화된 그 평가체계로 산거고, 이제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외적인 인격에 따라서 아니면 집단의식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만 살았냐 집단의식이라는 게 결국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아니면 역할이 주는 기대 그거에 의해서만 살았냐, 그러면 결국 내면의 삶은 충실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여자 8)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 5명의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성장 배경, 과거 경험, 환경 체계, 상황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문제를 지나치게 심리내적인 요인이나 과거 경험과 같은 단일한 요인으로 귀인하지 않고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건 꼭 뭐 정신분석적이거나 정신역동이나 이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일단 그 사람이 현재 문제로 인해서 가진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배경이 되는 문제형성과정에 기여하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촉발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담자의 히스토리(history), 이것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살펴봐요. 가족관계, 그리고 현재 환경이나 직장생활이나, 종교나, 이런 거 사실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참여자 8)

이론에 근거. 4명의 참여자들은 사례개념화 작업에 있어 이론적인 틀을 정하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5는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에 가장 적합한 이론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상담자가 선호하거나 친숙하게 느끼는 이론적 접근을 취하기보다 보다 통합적이고 절충적인 관점에서 이론적 선택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여러 이론들, 치료접근들을 종합해서 이 내담자의 문제를 매칭(matching)시켜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이론에 따라서 내담자의 문제를 조금 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개념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담자 문제를 개념화하고 나서 이제 개인 목표화 하고 그에 따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핵심 내러티브 탐색. 2명의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 정체성의 내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기술하는 방식, 즉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내러티브를 탐색하는 것은 치료적 작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사례개념화 작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내담자의 기본 신념. 혹은 자기 정체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사람이 추구하려고 하는 삶은 뭔가? 정말로 자기가 의미 있고 자기가 기쁘고 생동감 있는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쪽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참여자 5)

자원이나 강점에 대한 관심. 2명의 참여자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문제 상황이나 행동을 파악하

는 것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를 현재까지 기능하게 한 자원이나 강점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든지 그래서 이 현재 드러나는 증상들이 뭐지?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들지만 여태까지 지켜오고 지탱해 올 수 있게 했던 긍정적인 점은 뭐지? (참여자 4)

역지사지의 태도 견지. 2명의 또 다른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 세계 안에서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례를 접할 때, 역지사지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상상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일단은 처음에는 사례를 충분히 한번 깊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례를 한번 읽을 때는 오래 걸리죠. 그리고 사례를 읽으면서 한번 내담자가 되어 보죠. 내담자가 되어서 읽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려요. (참여자 2)

반복적 수정 및 명료화. 2명의 참여자는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도하지만 그것으로 사례개념화 작업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히려 상담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내담자의 핵심 문제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으며 슈퍼비전을 통해서도 애초의 관점이 수정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주요 정보의 기록 및 통합. 2명의 참여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정보라 생각되는 내용을 틈틈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메모가 모아지면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개별 메모 내용들을 연결시켜 하나의 지도(map)를 완성한다는 내용이였다.

3) 상담 목표 설정 방법

이 영역은 사례개념화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이 반영된 것이다. 목표 설정은 사례개념화와 상담개입전략 수립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

내담자의 바람에 초점을 둔 합의된 목표 설정. 일반적인 수준의 빈도를 보인 이 범주는 상담목표에는 내담자의 바람이 반영되어야 하고 목표 설정 과정에서는 내담자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이 자신이 상담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욕구나 바람을 명료화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 중심의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그들은 표면적인 수준에서 목표를 합의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왜 이 목표가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내담자 스스로가 목표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전념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음.. 일단은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담자하고 같이 설정한다. 내담자가 물론 자기
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호소문제로부터 일단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상담을 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가거나 수정해 나가는 방식. 그걸 좀 강조하는 편인 거 같아요. (참여자 1)

핵심 역동과 패턴 반영. 6명의 참여자들은 사례개념화 작업의 최종 목적은 결국 내담자의 핵심
적인 심리내적 역동과 인지, 정서,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담 목표에
는 이러한 요인의 변화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내담자가 제시한 호소 문
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는 핵심 역동이나 패턴
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삶에 보다 파급력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동과
패턴을 표적으로 하여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가장 핵심적인 역동은 here and now에 나오고 here and now에 나오는 행동은 가장 핵심적 역동
과 연결 돼 있다. 감자를 썰 때 어떤 중심을 잡으면 전체가 다 달려오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담자의 핵심적인, 그게 역동이든 패턴이든 신념이든 정서적인 규칙이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잡고 현
재에 되게 디테일한 이슈를 다루는 형태로 운영해 갈 때 제 스스로 깊이와 현실성이 동시에 있는 상담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담자들이 그러면 좀 도움을 받았다고 경험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 5명의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실제로 달성할 수 있고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참여자들은 핵심
역동과 패턴을 반영한 목표를 내담자와 합의하여 선정하더라도 내담자의 준비도나 가용 자원으
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주 미세한 변화라 하더라도 내
담자가 관찰 가능한 수준에서의 변화를 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고립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가 아니라, 유대감이 느껴지는 거가 뭐를 통
해 볼 수 있는지를 내담자에게 물어야 되겠지만, 그런 지표들을 누군가랑 회식 갈 때 내가 좀 반가운
마음이 든다거나,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중략) 이렇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지표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목표의 우선 순위 설정. 2명의 참여자는 목표가 여러 개일 경우 내담자와 함께 우선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필요하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나누는 것이 유용하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여러 개의 목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한 목표가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목표를 위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하나는 상담목표를 정할 때 항상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구요. 우선순
위.. 그리고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항상 상담목표에 저는 적어놓으라고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해요. (참
여자 2)

목표 점검 및 수정. 2명의 참여자는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상담의 초점이 불명확해지거나 목표와는 동떨어진 주제로 진행되는 경우,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내담자에게 상기시키면서 재초점화하거나,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가 등장할 경우 목표를 재설정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4) 상담 전략과 기법 선택 방법

이 범주는 내담자와 합의하여 선정한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담 전략과 기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상담 전략과 기법은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가 된다.

내담자 중심. 6명의 참여자들은 상담 전략과 기법을 선택할 때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내담자의 자원과 노력을 활용하게 하는 것인지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은 내담자의 성격특성, 변화에 대한 동기 수준, 인지적 능력, 선호도, 이념이나 신념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면서 내담자의 수용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술하였다.

제가 청소년들 상담을 할 때는 역동적 초점보다는 행동 쪽으로 그 긴장 상태를 내가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근데 뭐 같이 일지도 써보고 이완기법도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역동적 초점이 늘 상담자가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메인이 될지 아니면 다른 쪽이 더 우선일지 일단 당장 발표를 해야 되고, 퍼포먼스(performance)를 해야 되고 이런 내담자들에게는 또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7)

관계 형성. 5명의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성공적인 관계 형성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자 기법이며, 다양한 전략과 기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수용, 공감, 타당화를 통해 내담자와 충분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면 내담자와 개입 방법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신뢰감을 바탕으로 내담자 역시 상담자가 제안하는 기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일단은 가장 그냥 기본적인 게 내담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듣는 게 모든 전략의 기초인 것 같은.. 그래서 뭐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하려고 몸과 마음을 기울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그거가 사실 잘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참여자 1)

개입 순서 고려. 2명의 참여자는 전략과 기법을 선택하는 것은 설정된 상담 목표와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 설정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입의 순서(sequence)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내담자들이 문제를 호소하거나 그랬을 때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빨리 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자가 조금만 마음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보면 해결해주거나 빨리 직면해서 뭔가 다뤄주거나.. 단기상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다룰 수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순서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3)

5) 사례개념화 및 개입전략 수립에 관한 훈련 방법

이 영역은 사례개념화와 개입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초심 혹은 후배 상담자들에게 권해 주고 싶은 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이 범주화된 것이다. 숙련상담자들이 자신의 훈련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압축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풍부한 사례 경험.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직접적, 간접적 상담 사례 경험을 통해 풍부한 사례 개념화 연습 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들은 사례개념화 연습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지도 하에 슈퍼비전을 받으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사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서도 쉼 없이 사례개념화 연습을 하되, 연습 결과를 슈퍼비전을 통해 지도받거나 숙련된 전문가들의 사례개념화 내용과 비교하여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전문 슈퍼바이저가 사례개념화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권해요. 그래서 어, 나도 읽어가고 전문가가 읽어 와서 내가 읽어가서 정리한 입장을 전문가와 비교 검토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오답 노트 비슷한 거잖아요. 오답 노트 학습을, 사례개념화를 해봐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 내 사례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많이 노출하려면 다른 사람의 사례 슈퍼비전을 참관하는 거죠. (참여자 8)

이론적 틀 갖추기. 절반의 참여자들은 사례개념화의 바탕이 되는 이론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론적 학습과 관련하여 참여자 2명의 대비되는 의견은 주목할 만한데, 대상관계이론을 자신의 이론적 정향으로 지목한 참여자 6은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이론을 심화해서 학습할 것을 권한 반면, 통합적 입장을 취하는 참여자 7은 다양한 이론을 공부하여 활용 가능한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저는 사실은 특정 이론에 대한 심화된 학습 경험인거 같아요. (중략) 한 이론에 대해서 코리(Corey) 수준의 개론서 말고 적어도 그 영역을 30년, 40년 필드 경험을 하면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우리가 필드 경험과 책을 쓰는 사람들이 쓴 책, 그런 사람들의 책을 한 이론서에서 적어도 10권 정도는 숙독하고 개념정의를 해보는 경험이 내가 생각하는 사례개념화의 첫 번째 스텝이다. (참여자 6)

내담자들은 너무 다양하고 문제도 다양한데, 이게 어떤 하나의 틀로 이게 얼마나 먹히냐가 내담자마다 다르거든요. (중략) 그래서 또 되게 통합적인 면들도 있어 가지고, 계슈탈트, 인지행동, 역동, 다 공부하거든요. (참여자 7)

충실한 내담자 탐색. 2명의 참여자들은 성공적인 사례개념화를 위해서는 상담에서 충분한 탐

색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2는 사례개념화에 어려움을 겪는 초심자들의 경우 대부분 필요한 정보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자 4는 내담자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사례를 경험한다면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사례개념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내담자의 관점과 반응을 충실하게 탐색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는 그 사례개념화를 어려워하는 분들의 케이스를 잘 보면 전반적으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탐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사례개념화에 있어서 1단계가 탐색이잖아요 항상. 내담자의 문제를 규명하는 건 항상 탐색 이후예요. 근데 탐색이 부족하면 사례개념화를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참여자 2)

상담자 자신에 대한 성찰. 2명의 참여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개념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이자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 역시 그런 내담자와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인간임을 깨닫고 내담자의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사례개념화를 잘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결국은 내담자도 인간이고 저도 상담자 나도 인간인데 상담자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그 내가 조금 더 잘나서 저 사람을 상담해주는 사람,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전략 세우고 이렇게 정말 기술자로서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힘을, 파워(power)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게 큰 오산일 거 같아요. (참여자 4)

IV. 논의

본 연구는 숙련상담자 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 방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영역과 2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제 영역에서 참여자 간 공통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 시 숙련상담자들이 고려하는 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동적 수준의 빈도를 보인 범주들도 해당 내용을 언급한 참여자들의 이론적 색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범주의 내용도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거나 연결되는 내용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숙련상담자 혹은 상담 대가들은 이론적 정향보다 자신의 경험에서 축적된 지혜(wisdom)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지혜는 이론적 차이를 넘어 매우 공통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고한 선행연구(Fox et al., 2016; Gutierrez et al., 2018; Kealy et al., 2017; Wampold & Imel, 2015)를 지지하는 것이다.

초기 상담에서 숙련상담자들이 내담자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내담자의 외현적, 비언어적 특성과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이었다. 그들은 관찰 가능한 외적 특성에 주목하여 내담자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와 대인행동 패턴에 대한 초기 가설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언어적인 단서가 언어적으로 표현된 내용 이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상담자들의 가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내담자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주관적 호소문제에 대해서는 내용뿐 아니라 반복되거나 정서가 담겨있는 진술에 초점을 두어 핵심 문제에 접근하고, 제시하는 정보의 순서나 배치에 주의를 기울여 내담자가 방어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읽으며, 내담자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내담자의 대인관계 역동과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은 임상적 시사점을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은 숙련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의 구성요소를 조사한 선행연구(이명우 외, 2005; 이운주, 2001; Kealy et al., 2017)에서는 별도로 조명되지 않은 영역과 주제로, 신속한 사례개념화 작업을 위해 상담자들이 내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주의를 기울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다.

사례개념화 방법의 영역에서 도출된 주제는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제시하는 호소문제에 초점을 두어 사례개념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숙련상담자들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경험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과거사 탐색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내담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과 같은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맥락 요인에 대한 강조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9명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Gutierrez 외(2018)의 연구에서도 공통된 주제로 확인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의 발생 배경을 확인하는 데 있어 다면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담자의 핵심 욕구와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난 사례개념화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이긴 하지만, '욕구'라는 용어는 상담자의 이론적 정향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게슈탈트와 인간중심치료를 주요한 이론적 틀의 하나로 하는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자아실현욕구를 지칭한 반면 대상관계이론을 주로 활용하는 상담자는 발달과정에서 좌절되었거나 지나치게 충족된 친밀감 혹은 자율성의 욕구를 가리키는 의미로, 분석심리치료 상담자는 소외된 내적 인격과의 접촉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핵심 욕구를 탐색하고, 명료화하며, 수용하고, 타당화하는 것은 내담자 자신의 존재를 확인(affirm)하기 위한 필수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창대, 2009; 유성경,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숙련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구성요소를 밝힌 선행연구(이명우 외, 2006; Gutierrez et al., 2018)에서는 극히 부분적인 참여자의 관점으로 제시되거나 범주화되지 않았었는데, 내담자의 욕구는 인지, 정서, 행동, 대인관계 등에서 보이는 패턴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김창대, 2009)을 고려할 때 치료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일부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패턴을 확인하고 대안적인 패턴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틀이 필요한데 자신들은 특정한 이론을 고수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주제를 언급한 참여자들이 모두 통합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결과를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에는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 과정이 이론(theory)이나 진단(diagnosis)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최윤미, 2019; Seligman & Reichenberg, 2014; Sperry & Sperry, 2012), 내담자의 고유한 특성과 역동, 상황 등에 따라 사례 특정적(case-specific)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Gazzillo, Dimaggio와 Curtis(2019)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를 보인 주제로 핵심 내러티브 탐색이 있었는데,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 핵심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사례개념화의 절차에 포함시켰다. 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담자의 의미체계와 정체성을 명료화하는 것은 내담자가 부적응적인 사고나 행동 패턴을 수정하거나 대안적인 패턴을 추구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 과업으로 여겨지고 있다(유성경, 2018). 앞서 언급한 핵심 욕구의 확인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경험을 접촉하는 과정의 일부라면 핵심 내러티브의 탐색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경험을 평가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상위인지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내러티브의 탐색은 사례개념화의 지침을 제시한 문헌(이명우, 2017; Sperry & Sperry, 2012)과 숙련상담자들이 사용하는 사례개념화의 구성요소를 확인한 경험 연구(이명우 외, 2005; Gutierrez et al., 2018)에서는 별개의 주제로 도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기존의 사례개념화 연구가 주로 문제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치료적 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또 다른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를 보인 주제는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인데, 이 주제가 언급된 인터뷰 내용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문제 상황에서도 곳곳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담자의 힘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점과 자원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사례개념화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거의 모든 문헌(이명우, 2017; 이명우 외, 2005; 이윤주, 2001; 이윤주, 2016; Sperry & Sperry, 2012)에서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측면에서 초심 상담자와 숙련 상담자 집단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권혜경, 이희경, 2013)을 고려할 때 사례개념화의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숙련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사례 정보를 접하려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유지하고, 중요한 정보의 조각들을 기록하여 그 조각들을 연결하고 통합해 가며, 사례개념화는 하나의 가설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가설을 수정하고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었다. 상담실무자들을 위한 사례개념화 방법을 제시한 이명우(2017)는 특히 인지적인 수준의 개념화가 아니라 내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공명할 수 있는 정서적인 수준의 개념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역지사지의 태도를 강조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가 되고 있다. 사례개념화를 완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 중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연결시켜 일목요연한 설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선행연구(이명우, 2017; 이명우 외, 2005)의 보고와 일치한다. 이러한 통합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이윤주(2016)는 내담자의 발달적 역사, 개인 내적 요인, 개인외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을 주호소문제와 문제행동으로 연결하고, 내담자의 자

원 및 취약성과 함께 주호소문제와 문제행동을 상담목표와 개입전략으로 연결시키는 ‘상담사례개념도’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경험 연구를 통해 이 방법의 실제적 유용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개념화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숙련상담자들은 당면한 문제 상황에서 내담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명료화하고 구체화하여 목표에 반영하고 그러한 목표가 왜 필요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내담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결국 내담자와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목표를 합의해 가는 과정 자체가 치료적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전형적인 빈도로 언급된 또 다른 주제는 사례개념화를 통해 확인된 내담자의 핵심 역동과 패턴이 상담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러한 역동과 패턴은 당면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해석과 대처방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다. 또한, 목표 자체가 현실생활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내담자가 실제 수행할 수 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달성 여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관점은 상담목표의 우선 순위화에도 직접 연결되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단기목표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다루고 그러한 작은 단계를 거쳐 도달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는 별도로 설정하여 단기목표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주제에는 복수의 목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목표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순서를 위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도 포함되어 있다. 상담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례개념화와 상담개입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지만(이명우, 2017), 목표 설정에 관한 숙련상담자들의 경험적 지식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되지는 못했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부분의 주제는 사례개념화 문헌(이명우, 2017; Sperry & Sperry, 2012)에서 제시한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내담자의 바람에 초점을 둔 목표 합의 과정을 강조한 점은 이러한 기존 지식을 보다 정교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숙련상담자들은 상담 전략과 기법을 선택할 때 내담자의 특성과 수용 및 실행 가능성, 준비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상담자가 특정한 전략이나 기법을 먼저 제안은 하되 내담자의 반응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내담자와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담자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따라 전략과 기법을 선택하여 실행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고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전략이나 기법은 상담자의 이론적 접근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는데 어떤 문제에 어떤 전략이나 기법이 효과적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내담자와 안정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된 조건에서는 어떤 전략이나 기법을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숙련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Gutierrez 외(2018)의 연구에서 유사하게 확인되었는데, 개입 전략과 기법을 선택하여 실행할 때 내담자와 상호 합의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고유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문제나 진단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특정한 이론과 그 이론에 고유한 상담기법

이 존재한다는 의학모형(*medical model*)의 가정과는 상반된 것으로, 오히려 이론에 관계없이 모든 상담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상담관계와 같은 공통 요인이 치료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맥락모형(*contextual model*)의 가정(Wampold, 2015)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례개념화 및 개입전략 수립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영역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상담 사례를 학습 자료로 삼아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손은정, 이해성, 2002; 오효정 외, 2012; 이운주, 김계현, 2002; 장유진, 2015; Falvey et al., 2005; Fox et al., 2016; Mayfield, Kardash, & Kivlighan, 1999)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안된 내용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습 과정을 혼자서 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례개념화 결과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들의 지도 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아이디어를 더해 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론적 틀을 갖추는 것에 관해서는 특정한 이론에 대한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다양한 이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공존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일관성 있는 사례개념화와 개입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특정 이론을 숙달할 정도의 수준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내담자와 문제의 유형에 따라 유용한 이론적 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여 사례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충되는 관점은 해당 주제를 언급한 참여자의 이론적 정향에서 비롯된 것인데, 결국 이론의 고유하고 특수한 요소가 상담 성과를 예측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학모델의 관점과, 범이론적인 공통 요소가 이론에서 파생되는 특수한 기법보다 상담 성과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맥락모델의 관점이 대비를 이루는 것(Wampold, 2015)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효율적인 사례개념화 작업을 위해서는 이론적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관련 문헌과 연구(이명우, 2017; 이명우 외, 2005; 이운주, 김계현, 2002; 장유진, 2015; Sperry & Sperry, 2012)에서 강조되긴 했지만, 특정 이론과 다양한 이론 중 어느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관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인 사례개념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경험적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숙련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상담자 교육 모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전통적으로 사례개념화와 상담개입전략 수립은 이론이나 진단을 기반으로 하여 훈련되어져 왔지만(최윤미, 2019; Seligman & Reichenberg, 2014; Sperry & Sperry, 2012), 실제 현장에서 숙련상담자들 혹은 상담 대가들은 임상적 판단과 의사결정 시 이론이나 진단에 기반을 둔 인지도식이나 지식구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전문적 경험에서 축적된 지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x et al., 2016; Gutierrez et al., 2018; Kealy et al., 2017; Wampold & Imel,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정향을 넘어 숙련상담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 방법을 조명함으로써 초심 상담자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상담 교육자들이나 슈퍼바이저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숙련상담자들이 사례개념화 작업 시 고려하는 요인들을 제시한 선

행연구(이명우 외, 2005; Gutierrez et al., 2018)를 확장하고 정교화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동료 지명 방식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섭외하였고, 상담 경력과 슈퍼비전 경력 측면에서 선행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보다 각각 5년 이상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대가급 상담자에 근접하는 숙련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상담수련생이나 초심 상담자들이 신뢰할 만한 경험적 지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사례개념화의 구성요소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 선행연구와는 달리 상담목표 설정과 상담전략과 기법 선택 시 활용하는 숙련상담자들의 경험적 지식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지식 기반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를 보면 참여자들의 이론적 성향이 반영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모든 상담에 보편적인 상담 과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에 관한 특정 이론이나 진단 중심의 상담자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범이론적인 공통요인(예, 내담자와의 작업동맹 형성)에 초점을 둔 보다 일반적인(generic) 형태의 상담자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정향의 측면에서 정신역동적 접근을 주로 취하거나 통합적 접근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는 참여자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은 본 연구 결과의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이론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동료 지명 시 확인된 이론적 정향(예, 계슈탈트)과 실제 참여자들이 진술한 이론적 정향(예, 계슈탈트와 대상관계를 통합한 접근)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범이론적 인지적 전략과 패턴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상담 이론별로 대가급 혹은 숙련상담자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숙련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특정한 진단적 정보가 포함된 상담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사례 제시를 통해 참여자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을 분석한다면 참여자의 전문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왜곡이나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이 자신이 실제에서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이상적이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왜곡과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단이나 증상 정보가 포함된 사례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혜경, 이희경 (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397-424.
- 김창대. (2009). 인간변화를 촉진하는 다섯 가지 조건에 관한 가설: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이해*, 30(2), 21-43.
- 김혜미, 오인수 (2016). 숙련상담자의 좌절경험 및 극복과정의 구조 분석. *상담학연구*, 17(5), 159-180.
- 손은정, 이해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상담자의 경력과 사례개념화수준 간의 관계: 인지적 지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55-271.
- 유성경 (2018).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핵심원리*. 서울: 학지사.
- 이명우 (2017).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의 실제: 통합적 사례개념화 모형(ICCM-X). 서울: 학지사.
- 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 사례개념화 교육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77-296.
- 이윤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수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79-93.
- 이윤주 (2016). 효율적인 상담사례개념화를 위한 상담사례개념도의 활용.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1(2), 53-72.
- 이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장유진. (2015). 상담의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539-568.
- 최윤미 (2019). 상담 이론에 기반한 상담사례의 사례개념화 -대상관계이론, 인지치료이론, 실존역동적 접근 방식의 사례개념화.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4(2), 27-41.
- Arkes, H. R. (1991). Costs and benefits of judgment errors: Implications for debiasing. *Psychological Bulletin*, 110, 486-498.
- Crits-Christoph, P., Baranackie, K., Kurcias, J. S., Beck, A. T., Carroll, K., Perry, K., Luborsky, L., McLellan, A., Woody, G., Thompson, L., Gallagher, D., & Zitrin, C. (1991). Meta-analysis of therapist effects in psychotherapy outcome studies. *Psychotherapy Research*, 1, 81-91.
- Eells, T. D. (1999). What do we know about master therapists?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arch*, 8, 314-317.
- Falvey, J. E. (2001). Clinical judgment in case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planning across mental health disciplin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292-303.
- Falvey, J. E., Bray, T. E., & Hebert, D. J. (2005). Case concept utilization and treatment planning: Investigation of problem-solving and clinical judgment.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7(4),

348-372.

- Fox, J., Hagedorn, W. B., & Sivo, S. A. (2016).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intuition: A task analysis of 44 experienced counsellors.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16*(4), 244-255.
- Garb, H. N. (1998). *Studying the clinician: Judgment research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zzillo, F., Dimaggio, G., & Curtis, J. T. (2019). Case formulation and treatment planning: How to take care of relationship and symptoms together.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Advance online publication.
- Goldfried, M. R., Raue, P. J., & Castonguay, L. G. (1998). The therapeutic focus in significant sessions of master therapists: A comparison of cognitive-behavioral and psychodynamic-interpersonal interven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 803.
- Gutierrez, D., Fox, J., Jones, K., & Fallon, E. (2018). The treatment planning of experienced counselors: A qualitative exa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6*, 86-96.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572.
- Kealy, D., Goodman, G., Rasmussen, B., Weideman, R., & Ogrodniczuk, J. S. (2017). Therapists' perspectives on optimal treatment for pathological narcissism.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8*, 35-45.
- Lambert, M. J., & Ogles, B. M. (2014). Common factors: Post hoc explanation or empirically based therapy approach? *Psychotherapy, 51*, 500-504.
- Laska, K. M., Gurman, A. S., & Wampold, B. E. (2014). Expanding the lens of evidence-based practice in psychotherapy: A common factors perspective. *Psychotherapy, 51*, 467-481.
- Liese, B. S., & Esterline, K. M. (2015). Concept mapping: A supervision strategy for introducing case conceptualization skills to novice therapists. *Psychotherapy, 52*(2), 190-194.
- Luborsky, L., Rosenthal, R., Diguier, L., Andrusyna, T. P., Berman, J. S., Levitt, J. T.,... Krause, E. D. (2002). The dodo bird verdict is alive and well—Mostly.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 2-12.
- Marcus, D. K., O'Connell, D., Norris, A. L., & Sawaqdeh, A. (2014). Is the dodo bird endangered in the 21st century? A meta-analysis of treatment comparison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4*, 519-530.
- Mayfield, W. A., Kardash, C. M., & Kivlighan Jr, D. M. (1999). Differences in experienced and novice counselors' knowledge structures about clients: Implications for case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504-514.
- Prieto, L. R., & Scheel, K. R. (2002). Using case documentation to strengthen counselor trainees' case conceptualization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11-22.
- Seligman, L., & Reichenberg, L. W. (2014). *Selecting effective treatments: A comprehensive systematic guide to treating mental disorders* (4th ed.). Hoboken, NJ: Wiley.

- Sperry, L., & Sperry, J. J. (2012). *Case conceptualization: Mastering this competency with ease and confidence*. London: Routledge.
- Strohmer, D. C., & Leierer, S. J. (2000). Modelling rehabilitation counselor clinical judgment.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4*, 3-10.
- Wampold, B. E. (2015). How important are the common factors in psychotherapy? An update. *World Psychiatry, 14*, 270-277.
- Wampold, B. E., & Imel, Z. E. (2015).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The evidence for what makes psychotherapy work* (2nd ed.). New York, NY: Routledge.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Case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Planning of Experienced Counselors

Jang, Yoojin(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qualitatively examined how experienced counselors would undertake case conceptualization and plan treatments in counseling.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experienced counselors, who held a doctoral degree and an advanced-level certification in counseling and also had a minimum of 15 years of counseling and five years of supervision experienc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Participants paid attention to the client's external and non-verbal characteristics, statements about the problem, and their own emotional responses to the client in order to assess overall impress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ient. For case conceptualization, they focused on the client's main complaints, identified key needs and patterns, and explored the causes of the problem from diverse viewpoints while relying on their chosen theoretical frame. As to setting goals in counseling, the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greement with the client and regarded it as critical to take into account the client's core dynamics and patterns and make goals realistic and attainable. In addition, they stated that a secure and reliable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would enhance the availability and effectiveness of strategies and techniques used in counseling. Participants recommended rich experiences as a top priority and suggest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as a way of improving the capabilities of undertaking case conceptualization and planning treatments.

[Keywords] Experienced counselors, Case conceptualization, Treatment plann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